

中 2017년 3/4분기 주요 경제지표 내용과 전망

오윤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연구원

주요내용

- 중국 국가통계국의 10월 19일 발표에 따르면 2017년 3/4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6.8%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이어감.
- 최근 중국의 실물경제 지표들은 글로벌 수요 및 중국 국내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소비의 실적 개선을 기반으로 대부분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17년 3/4분기에 이어 4/4분기에도 중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리스크 요인에 의한 경제성장 둔화의 우려도 존재함.

1. 이슈 현황

- 중국 국가통계국의 10월 19일 발표에 따르면 2017년 3/4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6.8%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이어감.
- 2017년 3/4분기 중국 경제는 수출 및 산업경기 회복과 소비의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 전망치(6.7% 내외)¹⁾에 부합하는 수치를 기록함.
- 3/4분기 중국 GDP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소비가 64.5%를 기록하면서 투자(32.8%), 순 수출(2.7%) 보다 중국 경제성장을 더 크게 견인하는 모습임.

1) 中国银行国际金融研究院(2017), 『中国银行中国经济金融展望报告(2017年四季度)』.

표1.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4	2/4	3/4	4/4	1/4	2/4	3/4	
GDP(%)	7.3	6.9	6.7	6.7	6.7	6.7	6.8	6.9	6.9	6.8	
경제성장 기여율 (%)	소비	48.8	59.7	64.6	75.0	73.4	71.0	64.6	77.2	63.4	64.5
	투자	46.9	41.6	42.2	36.5	37.0	36.8	42.2	18.6	32.7	32.8
	순수출	4.3	-1.3	-6.8	-11.5	-10.4	-7.8	-6.8	4.2	3.9	2.7
소매판매(%)	12.0	10.7	10.4	10.3	10.2	10.5	10.6	10.0	10.8	10.3	
고정자산투자(%)	15.7	10.0	8.1	10.7	9.0	8.2	8.1	9.2	8.6	7.5	
수출(%)	6.0	-2.6	-6.4	-9.7	-4.3	-6.7	-5.3	4.2	6.3	6.0	
수입(%)	0.7	-14.4	-5.4	-13.3	-6.7	-4.7	2.2	23.3	14.2	14.6	
산업생산(%)	7.0	6.0	6.0	5.9	6.1	6.2	6.1	6.8	6.9	6.3	
PMI	제조업	50.7	49.9	50.3	50.2	50.0	50.2	51.4	51.5	51.4	51.8
	비제조업	54.4	53.7	53.7	53.3	53.4	53.7	54.4	54.6	54.5	54.4
CPI	2.0	1.4	2.0	2.1	2.1	1.7	2.2	1.4	1.4	1.6	
70개 도시 부동산 가격지수	102.6	96.2	106.2	101.9	104.9	107.5	110.4	110.2	109.5	107.9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누계치임.
2) CPI/PMI/70개 도시 부동산가격지수는 분기 합계 평균임.
3) 기여율=항목별 증감액/전체 GDP 증감액*100
자료원: CEIC, 중국국가통계국.

2. 원인과 분석

■ 최근 중국의 실물경제 지표들은 글로벌 수요 및 중국 국내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소비의 실적 개선을 기반으로 대부분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소비) 중국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2017년 3/4분기 10.3%로 전기 대비 0.5%p 감소하며 다소 둔화하였으나 1~9월 누적 증가율은 10.4%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함.
 - 품목별로 살펴보면 건설 및 장식재(12.6%) 등 내구재와 스포츠·여가용품(17.4%), 의약품(12.4%), 화장품(12.1%) 등 소비재 판매가 1~9월 소매판매를 견인함.
 - 1~9월 중국 온라인소매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34.2% 증가하며 전체 소매판매 증가를 견인했으며, 인터넷·모바일 기기 사용자와 인프라 확대에 따라 실물상품의 온라인판매 비중(14.0%)이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임.
- (투자) 2017년 1/4분기 증가세를 회복했던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3월 이후 6개월 연속 둔화세가 지속되어 9월 증가율이 7.5%로 하락함.
 - 2017년 1~9월 3대 부문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제조업 투자가 4.2%, 부동산개발 투자는 8.1%, 인프라 투자는 19.8%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1%p(제조업), 2.3%p(부동산개발), 0.4%p(인프라)씩 증가함.
 -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정부와 민간에서 투자가 비교적 보수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전반적인 투자가 둔

화세를 보임.

- (산업경기) 2017년 3/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6%대를 유지하고 제조업 및 비제조업 PMI는 각각 51.8과 54.4를 기록하는 등 산업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 중국의 산업생산은 8월 증가율이 6.0%로 전월대비 0.4%p 감소했으나 9월 6.6%로 증가세를 회복하면서 3/4분기 6.3%의 증가율을 기록함.
 - 1~9월 누적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0.7%p 늘어난 6.7%를 기록한 가운데 고(高)기술산업과 장비제조업은 정부 지원 정책에 힘입어 각각 13.4%와 11.6%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산업생산 증가율을 크게 상회함.
 - 제조업 PMI와 비제조업 PMI는 2016년 10월 이후 11개월 연속으로 각각 51선과 54선을 상회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공급측 개혁 및 국유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제조업 경기 회복을 추진함과 함께 금융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 유지, 전자상거래 및 유통시장의 성장 추진을 통한 비제조업 부문의 발전을 도모함.

- (대외무역) 2017년 3/4분기에도 중국의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한 가운데 무역 흑자폭 회복과 함께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크게 확대됨.
 - 2016년 위축되었던 중국의 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일대일로 관련국과의 교역 확대에 힘입어 2017년 1~9월 누적기준 7.5% 증가함.
 - 인도(16.5%), 베트남(16.0%), 러시아(17.0%), 브라질(34.0%)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함.
 - 중국의 수입은 2017년 1월부터 두 자리 수 증가폭을 회복하면서 2017년 1~9월 누적기준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25.5%p 늘어난 17.3%를 기록함.
 - 경기 안정세 및 소득 증가에 따른 국내 수입 수요 회복과 더불어 2017년 상반기 수입량이 증가한 철광석(9.3%)과 원유(3.8%), 천연가스(15.9%)의 급격한 수입가격 상승²⁾이 전체 수입액 증가(8.5%)를 이끌.

- (부동산 시장) 2017년 3/4분기 중국 70개 도시 부동산가격지수는 107.9로 전기 대비 1.6p 하락하며 다소 둔화 양상을 보임.
 - 2017년 1~9월 중국 1선과 2선 도시의 부동산가격은 둔화 양상을 보인 반면 3,4선 도시는 1~7월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다 8월, 9월에 증가폭이 연속으로 감소함.
 - 올해 3~9월에 걸쳐 발표된 중국 정부의 부동산 거래 제한 및 대출 규모 축소 정책 등 엄격한 관련 규제 추진이 전반적인 부동산지수 상승 둔화를 야기함.

2) 중국해관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철광석의 수입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55% 상승, 원유는 47.9%, 천연가스는 10% 증가함.(중국해관(2017)「海关总署2017年上半年进出口有关情况新闻发布会」(2017.7.13.))

- (외환시장) 2017년 들어 강세로 전환되었던 위안화는 9월 11일 이후 소폭 약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외환 보유액은 3조 달러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2015년부터 절하 추세가 지속되던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2017년 들어 절상 기조로 전환된 후 강세를 이어오다 9월 12일부터 다시 절하 기조로 돌아섰으나 10월 들어서는 절상과 절하 기조를 반복하는 양상임.
 - 중국 외환보유액은 2017년 1월 2조 9,982억 달러로 축소되었으나 2월말 3조 달러선을 회복한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 9월말 기준 3조 1,085억 달러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외환보유액의 3조 달러선 방어를 위해 2016년 말 이후 중국내 다국적기업의 외환 송금, 개인의 환전, 중국 기업들의 해외 M&A 등 외환 유출을 적극 통제³⁾하는 동시에 국유기업들의 해외 차입, 자본시장 개방을 통한 외자 유치 등 외환 유입을 위한 조치를 시행함.

3. 전망과 시사점

- 2017년 3/4분기에 이어 4/4분기에도 중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리스크 요인에 의한 경제성장 둔화의 우려도 존재함.

- 중국 정부는 3/4분기 중국 경제가 공급측 구조조정 심화 과정에서 신성장 산업 발전과 기업의 체질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함.
- 2017년 4/4분기에는 상반기보다 다소 성장률이 둔화되겠지만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의 목표치에 부합하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 1인당 가처분 소득의 지속적 개선과 더불어 11월 11일 광군절(管棍节) 등 소비 확대 요인이 존재하여 4/4분기 소비지표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속도 조절에 나섰던 중앙 및 지방정부가 19차 당대회 이후 인프라 투자 및 PPP 사업을 본격 시행함으로써 6월 이후 다소 둔화되었던 투자 증가세가 회복되어 하반기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다만, 기업의 높은 부채율과 부동산 재고 누적 등의 일부 리스크 요인은 하반기 경제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구조개혁 및 감세조치 추진에 따라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디레버리징의 여파로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 및 기업부채 증가 가능성이 존재. 

3)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6년 중국 비금융업 ODI는 전년 동기대비 49.2%(2014년 15.6%, 2015년 13.3%) 증가하였으나, 2017년 1월-9월 비금융업 ODI는 전년 동기대비 -41.9%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참고문헌

- 中国政府网
- 新华网
- 中国国家统计局
- KIEP
- China Weekly
- 국내 언론사

알립니다

- CSF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